는 송나라 때인 1069년에 다시 발굴되어 1078년에 세워진 감로사 철탑에 다시 봉안되었다. 감로사 철탑 출토 장간사 사리기는 현재 진강시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녹정형의 장방형 석함과 은곽, 금관, 소금관 등 4중 용기로 구성되어 있다.[51] 한편 장간사에도 계속 탑과 사리장엄구는 남아 있었다. 최근에는 남경 장간사지의 명대 전탑의 지궁 유적에서 송대에 제작된 탑형사리장엄구가 출토되어 주목되기도 했다.[52]

장간사의 진신사리는 양 무제 연간에 수도에서 발견된 아육왕탑의 봉안품으로서, 아마 양나라 연간에는 가장 중요한 성물로 여겨졌을 것이다. 당시 도성 내에서 이루어진 본격적이며 대규모의 불교 의례였던 장간사탑의 중수는 양 무제의 전륜성왕으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수 양제가 장간사의 진신사리를 장안으로 옮겼다는 기록은 당시 장간사의 진신사리의 위상이 당시 불교계에서 가장 높았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수나라 양제에 의해서 진신사리가 이운되었던 탓인지, 수나라 이후의 장간사 아육왕탑의 위상은 영파 아육왕탑의 위상에 비해 상당히 격하되었다.

영파 아육왕탑과 남경 장간사의 아육왕탑은 모두 양 무제에 의해서 진신사리가 발견되고 공양되었으며 탑의 재건이 이루어졌다. 당시 재건된 탑은 모두 목탑으로 추정되며 현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사리를 봉안했던 영파의 탑형사리장엄구는 지속적으로 "아육왕탑"으로 불리면서

51) 감로사 철탑 지궁 출토 장간사 사리장엄구에 대해서는 江蘇省文物工作隊鎭江分隊・鎭江市博物館(1961), 「江蘇鎭江甘露寺鐵塔塔基發掘記」, 『考古』 6号,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302-315쪽 및 주경미(2003b), 위의 책, 306-312쪽 참조.

52) 남경 장간사는 명나라 때에 대보은사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명대 탑의 지궁은 2008년 발견되었다. 여기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는 송나라 1011년에 제작된 것으로 역시 오월국시대 이후 영파 아육왕탑의 형태를 닮은 탑형 사리장엄구이다. 南京市博物館(2009), 『聖塔佛光』, 南京: 南京市博物館; 주경미(2009d), 위의 논문, 96-99쪽; 祁海寧・周保華・龔巨平(2011), 「南京大報恩寺遺址北區考古發掘」, 國家文物局主編, 『2010 中國重要考古發現』, 北京: 文物出版社, 178-186쪽.

강남 지역에서 그 형식이 전승되었다. 양 무제 연간에 공양된 두 개의 아육왕탑은 부처의 진신사리를 공양함으로써 성덕을 드러내 보이는 아육왕 전승을 모방하여 이루어진 독특한 남조의 전륜성왕 사상을 반영한 것이다.

양 무제 이후 영파 아육왕탑은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하여 신이를 나타내 보이는 제왕이 불교의 이상적 제왕인 전륜성왕으로서의 자질이 있음을 드러내보이는 정치적 상징물로서 존숭되었다. 양 무제 이후 영파 아육왕탑의 진신사리를 공양했던 황제들로는 진(陳)의 선제(宣帝), 당의 중종 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양 무제의 불사와 전륜성왕 사상을 가장 적극적으로 차용한 제왕은 9세기 후반에 등장하는 오월국의 창시자 전류(錢鏐)이다. 또한 그의 손자인 전홍숙과 그 뒤를 이어서 강남에서 정권을 유지했던 남송의 황실에서는 양 무제와 전류의 뒤를 이어 지속적으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진신사리 신앙과 의례를 이어갔다.[53] 양 무제의 아육왕 전승을 바탕으로 한 전륜성왕 사상은 중국 불교 전통과 동남아 불교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된 것으로서, 다음으로는 당시 동남아시아의 불교적 상황과 양 나라의 교류 관계를 고찰하겠다.

5. 양 무제와 고대 동남아시아 불교

양 무제 연간에는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부처의 진신사리와 불상이 여러 차례 전래되었다. 여기에서는 먼저『양서』외국전의 기록을 중심으로 당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전래된 진신사리 관련 기록을 살펴본 후, 양나라 불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부남국의 상황을 고찰하겠다.

53) 주경미(2012), 위의 논문 참조.

5.1. 기록을 통해서 본 양 무제 연간의 동남아시아 불사리신앙의 전래

502년 즉위한 양 무제는 즉위 직후부터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과 교류를 가졌다. 양 나라 이전부터도 중국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꾸준한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중국 사서에는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54] 『삼국지』에서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로 임읍(林邑)과 부남만 기록했지만, 『양서』에는 해남제국으로 임읍, 부남, 돈손(頓遜), 비건(毗騫), 제박(諸薄), 반반(盤盤), 단단(丹丹), 간타리(干陁利), 낭아수(狼牙脩), 파리(婆利), 중천축(中天竺), 사자(師子)국 등 12개의 나라 이름이 보인다.[55] 이중에서 국왕이 니건도(尼乾道)를 받들었다는 임읍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불교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서』에 의하면, 양 무제 연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남아시아를 통해 부처의 사리가 전래되었다. 이때 전해진 사리는 보주형사리와 골아형사리가 모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또한 부처의 머리카락 사리, 즉 불발(佛髮)도 전래된 기록이 있다.[56]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양 무제의 즉위 직후에 사신과 승려를 보냈던 부남국일 것이다.[57] 앞서 고찰한 양 무제 연간에 이루어진 두 아육왕탑 발굴에 대해서도 역시 부남국조의

54) 동남아시아 고대사와 관련된 중국 기록은 중국의 각 시대별 正史 外國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09년부터 국문 번역 및 역주를 포함한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을 시리즈로 발간하여 국내 연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현재까지는 『史記』부터 『新五代史』까지의 외국전이 번역되어 있다.

55) 『양서 역주본』, 136-232쪽.

56) 사리의 종류와 기원은 주경미(2003b), 위의 책, 14-21쪽 참조.

57) 扶南國의 원래 국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국제 학계에서는 "푸난(Funan / Founan)"으로 통용되고 있다. "푸난"이라는 "山"을 뜻하는 고대 크메르어인 "banam(현대어 phnom)"에서 온 단어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남의 어원에 대한 여러 설에 대해서는 Lauwrence Palmer Briggs(1951), "The Ancient Khmer Empire." *Transaction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vol. 41, no. 1, p. 13.

맨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양 무제 연간의 아육왕 전승 구현은 부남국 불교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58]

부남국은 양나라 이전부터 남조와 교류를 했으며, 양 무제가 즉위한 직후인 천감 2년(503)에는 당시 부남국의 왕 교진여 사야발마(憍陳如 闍邪跋摩)가 양 무제에게 산호로 만든 불상을 보내어 통교를 시작했다.[59] 또한 사야발마의 뒤를 이어서 천감 13년(514)에 왕이 된 사야발마의 아들 류타발마(留陁跋摩)는 519년 사자를 보내 전단서상과 파라수엽을 바치기도 했다. 그 이후 부남국에 불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양 무제는 사자와 승려 운보를 보내어 이 불발을 양나라로 맞이해왔다.[60] 양 무제가 부남국에서 가져온 불발의 소재는 확실하지 않으나, 장간사에서도 불발이 발굴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당시에는 보주형 사리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이빨이나 머리카락같은 육신의 일부도 진신사리로서 공양했음을 알 수 있다.

반반국에서는 양 무제 중대통 원년(529)에 사자를 보내서 '아상(牙像)'과 탑을 보냈으며, 그 이듬해인 중대통 2년(530)에는 단단국에서 역시 아상과 탑을 각 2구씩 보내왔다고 한다. 한편, 양 무제는 중대통 5년(534)에 보리국에 사신을 보내어 진사리와 탑 그림을 가져왔다.[61]

이중에서 반반국과 단단국에서 보내온 '아상'에 대해서는 '상아로 만든 불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송서』(宋書)의 기록 및 법현의 여행기를 통해서 알려진 스리랑카의 불치와 같은 골아형 사리의 모형이거나 혹은 스리랑카의 불치 정사의 모형일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58) 부남국 불교에 대한 개설로는 강희정(2009), 「푸난(扶南) 불교조각의 연원과 전개」, 『미술사와 시각문화』 8호, 40-67쪽 참조.

59) "天監二年 跋摩復遣使送珊瑚佛像幷獻方物…" 『梁書』 권 54, 『양서 역주본』, 163-164쪽. 여기에서 '산호불상'은 '산호로 만든 불상', 혹은 '산호와 불상'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60) "(扶南國) 又言其國有佛髮 長一丈二尺 詔遣沙門釋雲寶隨使往迎之." 위의 글.

61) 이상의 내용은 『양서 역주본』, 176-177쪽 참조.

있다.[62] 만약 이것이 '불아상'(佛牙像)이었다면, 스리랑카에서 전래된 골아형사리신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당시 동남아에서 가져온 아상의 단서가 전혀 남아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보리국에서는 진사리와 탑 그림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진사리는 아마 보주형의 진신사리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리는 보리국에서 바친 것이 아니라 부남국의 불발과 마찬가지로 양 무제가 사신을 보내서 가져왔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양 무제는 부남국과 보리국에 부처의 진신사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사신을 보내어 그 사리를 양 나라로 가져온 것이다.[63] 이러한 강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불사리신앙은 역시 양 무제의 아육왕 전승 구현과 관련이 깊다.

아쉽게도 양 무제의 불교 및 전륜성왕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부남국에 대해서는 『양서』를 비롯한 중국 기록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중국 사서에서 부남국은 기원전 1세기경에 건국하여 7세기경까지 있던 베트남 남부 지역과 캄보디아 일대 지역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다.[64] 또한 3세기경부터 중국 남조와 활발한 교류를 시작했으며,

62) 『宋書』 권 97, 師子國條에 의하면 송 元嘉 5년(428) 스리랑카의 국왕이 송나라에 표문을 보내면서 '牙臺像'도 보냈다고 하는데, 스리랑카 및 외국 학자들은 이 '아대상'을 '불치정사의 모델'로 추정한다. 그러나 중국 불교조각 연구자들은 '아대상'도 '상아로 만든 불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경미(2008b), 위의 논문, 157-158쪽.

63) 사실상 이러한 사리의 강제 전래는 서양 중세 기독교에서 보이는 "거룩한 도둑질(Furta Sacra)"의 선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패트릭 J. 기어리, 유희수 옮김, (2010), 『거룩한 도둑질 - 중세 성유골 도둑 이야기』, 도서출판 길. 기어리에 의하면, 중세 기독교에서 성인의 유골을 종교적 숭앙의 이유로 강탈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라 거룩한 행위로 추앙되었다고 한다. 양 무제의 동남아 사리 전래는 이러한 선례가 이미 동아시아의 불교에서도 일찍부터 행해졌음을 알려준다.

64) 푸난의 역사에 대한 주요 개설로는 다음 글 참조. Paul Pelliot(1903), "Le Fou-Nan."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Tome 3, L'École, pp. 248-303; Briggs, *op.cit.*,

6세기의 양나라 연간에는 수도에 부남관이 설치되었었다. 부남국은 특히 5~6세기경에 그 세력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강역이나 도시 유적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양서』에서는 부남국의 남쪽 삼천리 아래에 있는 돈손국도 부남국에 속해 있는 나라라고 전하므로,[65] 부남국은 당시 중국과 국가 체제가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는 양 무제 연간에 교류했던 부남국의 중심지가 어느 지역인지, 당시 부남국의 불교 문화의 중심지가 어디에 대해서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대체로 양나라 연간의 부남국은 인도차이나반도 남부지역에서 태국 남부지역과 말레이반도 중부지역까지 이르렀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다.[66] 다음으로는 이 지역에 현존하는 고대 불교유적을 중심으로 전륜성왕 사상과 불사리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5.2. 인도차이나반도 남부의 주요 불교 유적

20세기 초반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진 동남아시아의 고고학적 조사는 부남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캄보디아 일대를 중심으로 발달했던 옥에오(Oc Eo) 문화권 유적들은 대부분 부남국의 강역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67]

---

pp. 12-36; Michael Vickery(2003-2004), "Funan Reviewed: Deconstructing the Ancient."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Tome 90-91, pp. 101-143; James C. M. Khoo, ed.(2003), *Art & Archaeology of Fu Nan: Pre-Khmer Kingdom of the Lower Mekong Valley,* Bangkok: Orchid Press.

65) 『양서 역주본』, 154-155쪽.

66) Vickery, 위의 논문 및 강희정(2009), 위의 논문 참조.

67) 최근까지 발굴조사된 부남국 시대의 유적과 유물에 대해서는 Khoo, *op.cit*. 다만 이 유적들에서는 아직까지 나라 이름으로 볼 수 있는 명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중국사서에 나오는 부남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異見이 많다. 특히 동남아시아의 현대 영토 문제와 관련하여, 고대사에 대한 베트남과 캄보디아, 태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므로, 각 나라에서는 이들 문화권이 동일한 문화

남부 베트남에 위치한 옥에오 유적은 1944년 프랑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기 시작했으며, 옥에오 주변 지역에서 유사한 고대 문화 유적지들이 다수 발견되었다.[68] 이러한 발굴 조사 결과, 베트남 남부의 옥에오와 캄보디아의 앙코르 보레이(Angkor Borei) 유적지가 부남국의 중요한 고대 도시 유적으로서 주목되었다. 그중에서도 앙코르 보레이는 부남국의 정치적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69]

양 무제 연간에 해당하는 시기의 부남국의 정치적 중심지, 즉 수도의 위치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당시 부남을 다스렸던 왕은 "교진여 사야발마", 즉 "콘디냐 자야바르만"(Kaundinya Jayavarman)이었다. 이 왕은 475년부터 514년까지 오랜 기간 동안 부남국을 통치했으며, 양 무제가 즉위했을 당시에 사신을 보내기도 했다.[70] 아쉽게도 자야바르만의 행적에 대

권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중국 사서에 기록된 "부남"으로 통칭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 대신 고고학적 문화권 설정에 의해 가장 올라가고 중요한 남부 베트남의 옥에오(Oc Eo) 유적의 이름을 따서 옥에오 문화권으로 비정하는 경우가 많다.

68) Louis Malleret(1959-1963), *L'archéologie du delta du Mékong*, 4 volumes. Paris: Publications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69) 부남국의 정치적 중심지, 즉 수도의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대체로 남부 베트남 옥에오 근처의 바프놈(Ba Phnom)과 앙코르 보레이를 유력한 도시 유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新唐書』에서는 부남이 진랍(Chenla, 첸라)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을 때 수도가 "特牧(Temu, 테무)城"이었으며, 이후 남쪽으로 내러서 "那弗那(Nafuna, 나푸나)城"으로 옮겼다고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편(2011),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1, 新唐書 外國傳 譯註 下』, 동북아역사재단, 996-998쪽. 이 책에서는 일본 학계의 견해를 인용하여 특목성을 비야다푸라(Vyadhapura)이자 바남(Banam)으로 비정하고, 나불나는 옥에오로 비정했다. 그러나 서구 학계에서는 특목성과 나불나성의 위치 비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뒤에 옮겨간 수도인 나불나성을 현재의 앙코르 보레이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비야다푸라는 후대 명문에 나오는 도시 이름으로 특목성과 동일한 지역으로 보지만, 바남, 즉 옥에오 위쪽의 바프놈 지역이 비야다푸라라고 보는 견해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부남국의 수도에 대한 서구 학계의 여러 설에 대해서는 John N. Miksic(2003), "The Biginning of Trade in Ancient Southeast Asia: The Role of Oc Eo and The Lower Mekong River." in Khoo(2003), *op.cit.*, pp. 11-12 참조.

70) "扶南王 憍陳如 闍邪跋摩"로 기록된 왕으로, 제나라 영명연간에도 중국에 사신을

해서는 양나라에 산호로 만든 불상을 보냈던 것 이외에는 자세하지 않다. 현존하는 비문 중에는 그의 첫 번째 부인인 쿠라프라바바티 왕비(Queen Kulaprabhavati)와 그의 아들인 구나바르만(Gunavarman)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 비문에 보이는 부남국 왕실의 인물들은 힌두교의 비슈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71]

『양서』에서 의하면 자야바르만의 사후에 적자인 왕자가 배다른 형 류타발마에 의해서 살해되었으며, 동생을 살해한 서자인 형이 왕이 되었다고 한다. 아마도 현존하는 비문에 나오는 구나바르만은 『양서』에 기록된 적자로 추정되며, 그의 배다른 형이자 왕이 된 류타발마는 또 다른 비문에 이름이 등장하는 루드라바르만(Rudravarman)으로 추정된다.[72] 양 무제가 부남국으로부터 불발을 가져온 것은 바로 이 왕 때이다. 이것은 단순한 불교 성물의 전래도 볼 수 있지만, 양 무제가 그의 전륜성왕 사상에 따라 정법에 어긋나는 왕인 루드라바르만으로부터 성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져왔다는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루드라바르만의 아버지인 자야바르만의 종교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의 부인과 적자인 구나바르만은 힌두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당시 부남국의 왕실에서는 양 무제 만큼 독실하게 불교를 숭앙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부남국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유물 중에는 부남국 왕실의 종교와는 상관없이 부남국에서도 전륜성왕 사상이 있었음을 알려 주어 흥미롭다.

남부 베트남의 안장(An Giang)성 다노이(Da Noi) 유적에서 출토된 금

보냈으며, 514년에 죽었다고 한다. 『梁書』 권 54, 列傳 제48, 『양서 역주본』, 162-164쪽.

71) 쿠라프라바바티의 이름이 보이는 명문은 닉 타 담방 덱(Neak Ta Dambang Dek)에서 출토되었으며, 구나바르만의 이름이 보이는 명문은 프라삿 프람 로벵(Prasat Pram Loveng) 유적지에서 출토되었다. Briggs, *op.cit*., p. 28.

72) Vo Si Khai(2003), "The Kingdom of Fu Nan and the Culture of Oc Eo," Khoo(2003), *op.cit*., p. 43 및 Briggs, *op.cit*.

<그림 5> 금제원형판. 3~6세기. 부남국 시대. 베트남 다노이 유적 출토. 안장성박물관 소장.

제 원형판들은 힌두교 신앙과 관련된 종교적 성물로 추정된다.[73] 이 원형판들 중 한 점에는 오른손을 높이 들고 서 있는 남성상이 새겨진 예가 있는데(그림 5), 남성의 오른손 아래에는 법륜이 표현되어 있다. 베트남 학자들은 이것을 힌두교의 비쉬누 신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오른손에 법륜을 들고 서 있는 남성의 도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금륜을 오른손으로 움직여 사방을 통치한다고 하는 전륜성왕 도상을 표현한 것이다. 앞에서 고찰한 남인도 자가야페타 불탑 출토 석조부조에서도 역시 오른손 쪽에 법륜을 표현해 놓았는데(그림 1), 대부분의 인도 전륜성왕상에서는 언제나 오른손 쪽에 법륜을 놓아둔다. 즉 이 상은 남인도의 전륜성왕 도상을 따른 것으로, 부남국이 인도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알려준다.

다노이 유적에서는 이 금판 이외에도 법륜이나 비쉬누 신상이 새겨진 예들이 여러 점 발견되었으므로 힌두교 신전 유적일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 다노이 유적의 성격이나 정확한 연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부분이 많지만, 여기에서 출토된 전륜성왕 도상을 새긴 금판은 인도를 통해 받아들인 부남국의 전륜성왕 사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인도에서는 불교와 힌두교, 자이나교 모두 공통된 전륜성왕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부남국의 왕실에서는 이러한 복합적인 전륜성왕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양 무제에게 아육왕 전승을 전한 부남국의 자

73) Le Thi Lien(2005), "Gold Plaques and Their Cultural Contexts in the Oc Eo Culture." *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vol. 25, 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pp. 145-154.

야바르만은 아마도 힌두교와 불교를 복합적으로 숭앙하면서 인도의 전륜성왕 사상을 받아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남국의 중심지로 추정되는 옥에오와 앙코르 보레이 지역에서는 불교 유적이나 유물이 출토되고 있긴 하지만, 힌두교 유적에 비하면 수가 적은 편이다. 옥에오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스투파 유적은 벽돌로 쌓은 인도식 건축물로서, 거소아이(Go Xoai) 유적의 경우에는 내부에서는 금판으로 싼 재와 금제 장식판, 장신구 등으로 구성된 사리장엄구가 발견되기도 했다.[74] 또한 옥에오 인근의 쯔워 링 썬에서는 중국계 조형 양식을 보여주는 동제불입상이 출토되어 부남과 양나라의 교류관계가 쌍방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75] 이외에도 앙코르 보레이에서는 인도 사르나트 불상 양식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6세기 전반경의 불상들도 출토되어, 이 지역의 불교 문화가 인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76] 그러나 전반적으로 부남국의 중심지였던 남부 베트남과 캄보디아 지역에서는 불교 문화보다는 힌두교 문화가 더 발달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남국의 서쪽에 해당하는 현재의 태국 경내의 고대 유적에서는 비슷한 시기의 부남국 유적들에 비해 훨씬 더 불교 문화가 발달한 양상을 보여 흥미롭다. 지금도 불교와 불탑 신앙이 중요한 태국과 미얀마 일대에서는 남부 베트남 일대보다 이른 시기의 고대 불탑 유적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양나라와의 교역시기를 고려하여 당시 부남국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태국 중부 지역에서는 우통(U Thong) 지역과 나콘파톰(Nakhon Pathom) 지역을 중심으로 고대의 불교유적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나콘파톰 지역의 왓 프라 멘(Wat Phra

74) *op.cit.*, pp. 150-151.

75) 강희정(2009), 위의 논문, 54-55쪽.

76) 강희정(2011),「고대 동남아 종교미술에 끼친 인도 미술의 영향」,『인문논총』65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89-219쪽.

Men) 유적과 왓 프라 파톰(Wat Phra Pathom) 유적은 벽돌을 쌓아서 건립한 불탑 유적으로서 중요하다. 이 두 유적은 모두 1930년대 후반부터 프랑스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되었으며, 적어도 3개 이상의 고고학적 층위가 확인되었다. 그중에서 가장 오래된 층위는 4-5세기경으로 추정되므로,[77] 아마도 부남국 시대의 제일 중요한 불사리 신앙 관련 유적으로 볼 수 있다.

중국 사서에 의하면 4세기 이후의 부남국은 말레이반도 지역까지의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다고 하므로, 중국 기록을 중요시한다면 나콘파톰 일대의 초기 불탑 유적지는 부남국의 불교 유적으로 볼 수 있다.[78] 그러나 태국 학계에서는 나콘파톰 유적지를 부남국 시대로 편년하지 않고, 수완나부미(Suvaṇṇabhūmi) 시대, 프리 드바라바티 시대, 혹은 돈손 시대로 분류하고 있다.[79] 이러한 시대 추정 문제는 현대 국가의 역사적 개념 및 중국 사서의 신빙성 문제 등과도 결부되기 때문에, 쉽게 논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그러나, 나콘파톰 지역과 인근의 우통 지역의 초기 불교 유적지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이 부남국시대 유적인 앙코르 보레이나 옥에오 지역의 유물들과 상통하는 점이 많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

77) Pierre Dupont, translated by Joyanto K. Sen(2006), *The Archaeology of the Mons of Dvāravatī Volume I – Text,* Bangkok: White Lotus Press, pp. 17-74.

78) Briggs, *op.cit.*, p. 23; 강희정(2009), 46쪽.

79)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Ian Glover(2011), "The Dvaravati Gap – Linking Prehistory and History in Early Thailand." *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vol. 30; Nicolas Revire(2011), "Facts and Fiction: The Myth of Suvaṇṇabhūmi and Early Buddhist Archaeological Data in Mainland Southeast Asia," unpublished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ddhist Linkages in South and Southeast Asia: Perspectives and Prospects,* University of Delhi. 이안 글로버와 니콜라 르비어는 태국의 드바라바티 이전 시대를 부남국으로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필자와는 견해가 약간 다르다. 이 시기를 부남국으로 보는 학자로는 브와스리에(Boisselier)와 브론슨(Bronson)이 있다. 각 시대 설정에 대한 사학사적 검토는 이안 글로버의 논문 참조. 필자는 이 지역의 문화를 부남국에 속한 돈손으로 해석하고 싶지만, 이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림 6> 은화. 4~6세기. 태국 우통 유적 출토. 태국 나콘파톰 국립박물관 소장.

<그림 7> 은화. 4~6세기. 베트남 안쟝성 출토. 베트남 하노이 국립역사박물관 소장.

특히 나콘파톰과 우통 지역의 고대 유적에서 종종 출토되는 은제 장식들은 부남국의 은화로 추정되기도 한다(그림 6). 작은 원형에 두드려서 만들어내는 이러한 은화들은 인도 쿠샨시대의 동전 제작방식을 따라서 만든 것으로, 독특한 부남국 시대의 여러 문양들이 새겨져 있다. 특히 수레바퀴와 비슷한 문양이나 삼보 문양들을 새긴 유사한 은화들은 부남국의 중심지인 앙코르 보레이나 옥에오 지역에서도 출토되고 있으며(그림 7), 미얀마의 고대 유적지인 베익타노(Beikthano)에서도 출토되었다.[80] 이러한 인도식 은화의 제작은 당시 무역과 상업이 발달했던 부남국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주목된다.

나콘파톰 지역에는 지금도 태국왕실에서 아육왕탑으로 숭앙하는 프라파톰 체디(Prapathom Chedi)가 있다(그림 8). 프라파톰 체디는 19세기말 태국의 국왕이 아육왕탑의 유적지로 발견하여 재건한 것으로서, 현존하는 불탑 중에서 가장 큰 불탑이다.[81] 불탑은 스리랑카의 불탑들과 유사

80) Betty Gosling(2004), *Origins of Thai Art,* Bangkok: River Books, pp. 38-39.

81) Jean Boisselier(2000), "La Reconstruction de Phra Pathom Chedi: Quelques précisions sur le site de Nakhon Pathom," *Aséanie.* vol. 6, Bangkok: Éditions du Centre

<그림 8> 프라파톰 체디. 19세기말. 태국 나콘파톰.

한 복발형 탑형식이며 높은 상륜부가 있고, 불탑 주변에는 불상이 봉안된 감실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 물론 프라파톰 체디는 현대에 재건된 것이지만, 나콘파톰 지역은 동남아시아의 여러 지역 중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불사리신앙 및 전륜성왕 사상이 전해졌던 지역으로써 주목된다.

프라파톰 체디 주위에 위치한 나콘파톰 지역의 여러 불교 유적에서는 6세기 이후 드바라바티시대의 유물로 편년되는 석조 법륜이 상당수 남아 있다(그림 9). 이러한 석조 법륜은 전륜성왕과 불법(佛法)의 상징물로서, 불교 문화의 전래를 알려주는 것이다. 고대 인도에서 법륜은 전륜성왕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처의 상징물로서 존숭되었다. 특히 기원전후의 인도 불탑 부조에서는 법륜을 숭앙하는 장면이나, 법륜을 얹은 석주의 모습 등이 표현되기도 했다. 나콘파톰의 법륜과 석주들은 부남국시대보다는 조금 늦은 드바라바티시대의 작품이지만, 이 지역이 일찍부터 인도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음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매우 중요하다.[82]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나콘파톰의 프라파톰 체디를 제외하고는 아육왕탑의 유적으로 알려진 예가 매우 드물다.[83] 프라파톰 체디를 태국 황

d'anthropologie Sirindhorn, pp. 159-189.

82) Betty Gosling, *op.cit.,* pp. 52-59; Robert L. Brown(1996), *The Dvāravatī Wheels of The Law and the Indianization of South East Asia,* Leiden: E. J. Brill.

83) 태국 이외에 아육왕 전승이 전해지는 곳으로는 미얀마 지역이 주목된다. 특히 11세

<그림 9> 석조 법륜. 6~7세기. 태국 나콘파톰 출토. 나콘파톰 국립박물관 소장.

실에서 아육왕탑으로 비정한 것은 현대의 일이긴 하지만, 이 지역에 현존하는 고대 불교 유적지의 존재들은 여기에서 일찍부터 인도를 통해서 불사리신앙과 전륜성왕 사상을 중시하는 독특한 불교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시켰음을 알려준다. 즉 나콘파톰 지역은 4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동남아시아 불교의 중심지가 되어 왔으며, 부남국의 영역 중에서 가장 불사리신앙과 불탑 건립이 활발했던 지역에 해당한다. 아마도 인도의 아육왕 전승은 남인도에서 해로를 통하여 스리랑카로 전해져 스리랑카 왕실의 불치사리 공양으로 발전했으며, 다시 스리랑카의 불사리신앙은 동남아시아의 거소아이와 나콘파톰 등 부남국의 여러 지역으로 전래되었을 것이다.

어쩌면 양 무제 연간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져간 부처의 머리카락이나 사리 중 어떤 것은 이 나콘파톰 지역의 유적에서 전해진 것일지도 모른다. 또한 불사리신앙과 전륜성왕 사상을 양나라에 전한 부남국 승려들 중에서도 부남국의 중심부에서 떨어진 태국 중부의 나콘파톰 지역에서 온 인물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러한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증명하기 힘들지만, 이후 나콘파톰을 비롯한 태국 중부 지역에서는 부남국이

기 이후의 미얀마 지역에서는 진신사리 신앙과 불교적 전륜성왕 사상, 아육왕 전승이 모두 발달했으며 불탑 유적도 많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대부분 양 무제보다는 후대에 부회된 전승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동남아 연구자들의 관심과 연구가 필요한 과제이다.

쇠퇴한 이후에 불교를 숭앙하는 드바라바티 왕조가 발전하게 된다. 즉 이 지역의 숭불왕조의 등장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아래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6. 맺음말

남조 양 무제는 동아시아의 불교적 제왕인 전륜성왕 사상을 아육왕 전승에 기초하여 독특하게 구현해낸 최초의 숭불 황제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가 아육왕 전승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데에는 당시 남방 해로를 통해서 전래된 동남아시아의 문화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국제 관계 속에서 그는 독자적인 정치적 위상을 구축할 수 있었다.

양 무제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은 그의 치세 아래에서 활발한 역경 사업을 펼쳤던 부남국 출신의 만다라와 승가파라라는 두 명의 승려였지만, 전반적으로는 동남아시아 문화, 특히 부남국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양나라에 승려를 통해서 아육왕 전승을 보냈던 부남국 왕실에서는 힌두교와 불교의 전륜성왕 사상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이것은 인도 문화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부남국의 중심지역인 남부 베트남과 캄보디아 지역에서는 불교 유적이나 불사리신양보다는 힌두교가 좀 더 활발하게 숭앙되었던 것 같으며, 오히려 부남국의 서쪽에 해당하는 태국 중부 지역에서는 불사리신앙 및 불교적 전륜성왕 사상 등의 인도의 불교 문화를 일찍부터 받아들였다. 아마도 양 무제 연간의 부남국 왕인 자야바르만왕은 고대 인도의 전륜성왕 사상을 계승했던 동남아시아의 제왕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자야바르만의 사후, 그 아들들의 정권 다툼 속에서 양 무제가 부남국으로부터 불발을 획득했던 것은 양 무제가 동남아시아까지 아우르는 전륜성왕으로서 자신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했던 것

으로 추정된다.

양 무제의 전륜성왕 사상은 아육왕 전승의 구현을 통해서 발전되었는데, 그의 아육왕 전승 구현은 부처의 진신사리 공양으로서 완결되는 점이 특징이다. 양 무제 이후 동아시아의 여러 제왕들은 아육왕 전승과 양 무제의 전승을 모방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부처의 진신사리 공양을 성대하게 행했으며, 그를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전륜성왕에 비견하며 높였다. 그리하여 아육왕 전승을 차용하여 양 무제 연간에 숭앙되었던 여러 불교 성물들은 이후 역대 제왕들에 의해서 또다시 반복적으로 공양된다. 이러한 성물의 재발굴과 공양 행위의 반복은 이 성물들의 위상을 원래의 종교적 기능에서 벗어나 정치적 선전물로 변화시켰다. 특히 강남 지역에서는 영파 아육왕탑의 진신사리가 제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정치적 상징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송대까지 지속적으로 여러 제왕들에 의해서 공양되었다.

양 무제는 정치적 선전을 목적으로 한 진신사리 공양과 숭불 활동을 동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활성화시켰으며, 인도 및 동남아시아, 특히 부남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불교 문화를 받아들인 적극적인 숭불황제로서, 동아시아의 고대 불교사를 이해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아육왕 전승으로 대표되는 양 무제 연간의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는 당시 중국 뿐아니라 한반도까지 연결되면서 고대 아시아의 불교 및 정치, 사회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양 무제 연간의 문화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남아시아 문화와의 교류에 대해서 좀 더 고찰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추후의 연구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大正新修大藏經』.
『欽定四庫全書』.

강희정(2006), 『관음과 미륵의 도상학』, 학연문화사.
_____(2009), 「푸난(扶南) 불교조각의 연원과 전개」, 『미술사와 시각문화』 8호, 미술사와 시각문화 학회.
_____(2011), 「고대 동남아 종교미술에 끼친 인도 미술의 영향」, 『인문논총』 65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鎌田茂雄(1993), 章輝玉 譯, 『中國佛敎史 제3권 - 南北朝의 佛敎(上)』, 장승.
고혜련(2011), 『미륵과 도솔천의 도상학』, 일조각.
金理那(1989), 『韓國古代佛敎彫刻史硏究』, 一潮閣.
김민나(2005), 『문심조룡 - 동양 문예학의 집대성』, 살림출판사.
金三龍(1983), 『韓國彌勒信仰의 硏究』, 同和出版公社.
동북아역사재단 편(2010),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6 南齊書·梁書·南史 外國傳 譯註』, 동북아역사재단.
_____(2011), 『譯註 中國 正史 外國傳 11, 新唐書 外國傳 譯註 下』, 동북아역사재단.
朴京俊(1996), 「轉輪聖王에 관한 몇 가지 문제」, 『東國論叢』 35집, 동국대학교.
백명성(1998), 「해제-고승전」, 『한글대장경 高僧傳外』, 동국대학교부설 동국역경원.
법회연구원 편(1998), 『미륵삼부경』, 정우서적.
소현숙(2009), 「梁 武帝의 佛敎政策」, 『韓國古代史探究』 2집, 한국고대사탐구학회.
_____(2011), 「위진남북조시대 阿育王像 전승과 숭배」, 『불교미술사학』 11호, 통도사성보박물관.
_____(2012), 「政治와 瑞祥, 그리고 復古: 南朝 阿育王像의 形式과 性格」, 『美術史學硏究』 271·272호, 한국미술사학회.
양은경(2009), 「양 무제시기 불교사찰, 불교조각과 사회변화」, 『미술사학』 23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윤세원(2006),「전륜성왕의 정치사상적 의미에 관한 연구 - 통치자질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불교학연구』14호, 불교학연구회.
_____(2008),「전륜성왕의 개념형성과 수용과정에 관한 연구」,『동양사회사상』17집, 동양사회사상사학회.
이거룡(2009),『전륜성왕 아쇼까』, 도피안사.
이주형(2000),「사르나트 출토 4사자 주두의 네 가지 동물과 그 역사적 전개」,『인도연구』5호, 한국인도학회.
_____ 책임편집(2009),『동아시아 구법승과 인도의 불교유적』, 사회평론.
周炅美(2003a),「中國 古代 皇室發願 佛舍利莊嚴의 정치적 성격 - 易姓革命의 선전물로서의 眞身舍利供養」,『東洋學』33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_____(2003b),『중국 고대 불사리장엄 연구』, 일지사.
_____(2003c),「隋文帝의 仁壽舍利莊嚴 硏究」,『中國史硏究』22집, 중국사학회.
_____(2005),「遼 興宗年間(1031～1055)의 佛舍利莊嚴 硏究」,『中國史硏究』35집, 중국사학회.
_____(2006a),「탑형 사리장엄구: 건축 이미지의 공예적 변용」,『미술사와 시각문화』5호,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_____(2006b),「中國 浙江省 杭州 雷峰塔의 佛舍利莊嚴」,『佛敎美術史學』4호, 통도사성보박물관.
_____(2007),「中國의 阿育王塔 전승 연구」,『東洋古典硏究』28집, 동양고전학회.
_____(2008a),「李成桂 發願 佛舍利莊嚴具의 硏究」,『美術史學硏究』257호, 한국미술사학회.
_____(2008b),「스리랑카의 佛齒精舍와 동아시아의 求法僧」,『역사와 경계』69집, 부산경남사학회.
_____(2009a),「고대 국왕의 진신사리 공양과 정치적 함의」,『인문사회과학연구』10권 2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_____(2009b),「쿠빌라이 칸과 대성수만안사의 백탑」,『미술사와 시각문화』8호, 미술사와 시각문화학회.
_____(2009c),「百濟 彌勒寺址 舍利莊嚴具 試論」,『역사와 경계』73집, 부산경남사학회.
_____(2009d),「北宋代 塔形舍利莊嚴具의 硏究」,『中國史硏究』60집, 중국

사학회.
_____(2012),「吳越國王 錢鏐의 寧波 阿育王塔 공양과 그 의의」,『中國史硏究』77집, 35-69쪽.
츠카모토 게이쇼(2008), 호진·정수 번역,『아쇼까왕 비문』, 불교시대사.
패트릭 J. 기어리, 유희수 옮김, 2010,『거룩한 도둑질 - 중세 성유골 도둑 이야기』, 도서출판 길.

江蘇省文物工作隊鎭江分隊・鎭江市博物館(1961),「江蘇鎭江甘露寺鐵塔塔基發掘記」,『考古』6号, 中國社會科學院考古硏究所.
宮治昭(1992),『涅槃と彌勒の圖像學 - インドから中央アジアへ』, 東京: 吉川弘文館.
_____(2010),『インド佛敎美術史論』,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祁海寧・周保華・龔巨平(2011),「南京大報恩寺遺址北區考古發掘」, 國家文物局 主編,『2010 中國重要考古發現』, 北京: 文物出版社.
金子典正(2003),「中國四川省出土阿育王像に關する調査硏究 - 阿育王像說話の成立と南北朝時代の造像を中心に」,『鹿島美術財團年報』20號, 鹿島美術財團.
南京市博物館(2009),『聖塔佛光』, 南京: 南京市博物館.
大島幸代(2008),「鄧縣阿育王塔の形狀に關する基礎的考察」,『奈良美術硏究』7호, 奈良美術硏究所.
望月信亨(1973),『佛敎大辭典』 제 4권, 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栢俊才(2008),『梁武帝蕭衍考略』,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肥塚隆・宮治昭 編(2000),『世界美術全集 東洋編 13 インド(1)』, 東京: 小學館.
山崎元一(1994),『古代インドの王權と宗敎』, 東京:刀水書房.
森三樹三郎(1956),『梁の武帝 - 佛敎王朝の悲劇』, 京都: 平樂寺書店.
小野勝年(1985),「新昌・石城寺 彌勒像 - 江南巨大石佛史的遍歷」,『佛敎藝術』163號, 每日新聞社.
松本文三郎(1911),『彌勒淨土論』, 東京: 丙午出版社.
田曉菲(2009),『烽火與流星』,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赵以武(2006),『梁武帝及其時代』, 南京: 鳳凰出版社.
諏訪義純(2007),『中國南朝佛敎史の硏究』, 京都: 法藏館.

Boisselier, Jean(2000), "La Reconstruction de Phra Pathom Chedi: Quelques précisions sur le site de Nakhon Pathom," *Aséanie.* vol. 6, Bangkok: Éditions du Centre d'anthropologie Sirindhorn.

Briggs, Lauwrence Palmer(1951), "The Ancient Khmer Empire." *Transaction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New Series, vol. 41, no. 1, Philadelphia: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Brown, Robert L.(1996), *The Dvāravatī Wheels of The Law and the Indianization of South East Asia,* Leiden: E. J. Brill.

Dupont, Pierre, translated by Joyanto K. Sen(2006), *The Archaeology of the Mons of Dvāravatī Volume I - Text,* Bangkok: White Lotus Press.

Falk, Harry(2006), *Aśokan Sites and Artefacts.* Mainz am Rhein: Verlag Philipp von Zabern.

Ghosal, U. N.(1966), *A History of Indian Political Ideas,*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Glover, Ian(2011), "The Dvaravati Gap - Linking Prehistory and History in Early Thailand." *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vol. 30, Seattle: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Gosling, Betty(2004), *Origins of Thai Art,* Bangkok: River Books.

Khoo, James C. M. ed.(2003), *Art & Archaeology of Fu Nan: Pre-Khmer Kingdom of the Lower Mekong Valley,* Bangkok: Orchid Press.

Le, Thi Lien(2005), "Gold Plaques and Their Cultural Contexts in the Oc Eo Culture." *Bulletin of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vol. 25, Seattle: The Indo-Pacific Prehistory Association, pp. 145-154.

Lee, Junghee(1993),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Pensive Bodhisattva Images of Asia." *Artibus Asiae* vol. 53, no. 3/4, Artibus Asiae Publishers.

Malleret, Louis(1959-1963), *L'archéologie du delta du Mēkong*, 4 volumes. Paris: Publications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Olivelle, Patrick · Janice Leoshko · Himanshu Prabha Ray(2012), *Reimagining Aśoka: Memory and History,*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Olivelle, Patrick, ed.(2009), *Aśoka: In History and Historical Memory,* Delhi: Motilal Banarsidass.

Pelliot, Paul(1903), "Le Fou-Nan."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Tome 3, Paris: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Revire, Nicolas(2011), "Facts and Fiction: The Myth of Suvaṇṇabhūmi and Early Buddhist Archaeological Data in Mainland Southeast Asia," unpublished paper presen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Buddhist Linkages in South and Southeast Asia: Perspectives and Prospects,* University of Delhi.

Smith, Vincent A.(1992), *The Edicts of Asoka,*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Publishers(reprinted).

Strong, John S.(1983), *The Legend of King Asóka,*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Vickery, Michael(2003-2004), "Funan Reviewed: Deconstructing the Ancient." *Bulletin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Tome 90-91, Paris: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원고 접수일: 2012년 5월 1일
심사 완료일: 2012년 5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24일

ABSTRACT

The Aśokan Revivalism of Emperor Wudi in Liang China and Ancient Southeast Asia

Joo, Kyeongmi

Emperor Wudi of the Liang dynasty in China was one of the famous and important Buddhist emperors in Asia. His political idea as a revered Buddhist emperor was developed under the Buddhist concept of "Cakravartin", which means an ideal universal ruler who ruled the entire world with perfect right ethics and benevolence. The idea of Buddhist Cakravartin was transmitted into China before Emperor Wudi of Liang, but unlike other emperors, he realized his political ideals as a Cakravatin by borrowing the mythical image of a famous Indian historical model, King Aśoka of Mauryan dynasty.

Although the Aśokan tradition was transmitted to Emperor Wudi in China, the character in the tradition was more idealized than the real historical King Aśoka in India. Emperor Wudi reenacted some important Buddhist offerings to the Buddha's relic after the Aśokan tradition. He discovered two Aśokan stupas in his land, each enshrining the Buddha's relic, and then built new pagodas for these relics. Such Buddhist relic

worship by Emperor Wudi was performed as a political propaganda for his status as a Buddhist ideal Cakravartin after King Aśoka. The first revivalism of the Aśokan tradition by Emperor Wudi was again spread to the Buddhist world of East Asia after him.

This Aśokan revivalism of Emperor Wudi was a very characteristic ruling theory in East Asian Buddhism. It might have been transmitted from ancient Southeast Asia, which interacted with Liang China at that time. During the reign of Emperor Wudi, some famous monks of Funan came to Nanjing, the capital of Liang, and translated many Buddhist Sutras including the story of King Aśoka at the court of Liang sponsored by the emperor. According to the Chinese historical records, Funan kingdom is the most important and influential region in Southeast Asia on Aśokan revivalism of Emperor Wudi in China.

However, the territory and religion of Funan Kingdom have not been identified yet. Although many archaeological sites and artifacts of Funan period have been discovered, many scholars in the Southeast Asian study have been disputed on these themes regardless of the importance of ancient Chinese historical records. To search on the material evidences for the Cakravartin ideas during Funan period related with Liang Wudi is one of the principal but ongoing challenges for understanding the early Southeast Asian history and culture.